

SG한국삼공, 농업연구소 신축 준공식 가져

6. 30. 전북 김제시에서, 농약원제 원천기술 확보의지 밝혀



SG한국삼공(대표이사 한태원)이 지난 6월 30일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서 농업연구소 신축 준공식을 갖고 양질의 농약 원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유관기관 및 원제사, 언론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공식에서는 정창국 연구소장의 신축준공 경과보고와 한태원 대표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내외귀빈의 테이프 커팅식, 헌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식준공행사후 참석자들은 초현대식으로 설계된 연구소 내·외부 최신시설과 실험장비, 유리온실 등의 연구소 시설 모두를 관람했다.

한태원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인축과 환경에 안전하고 효과 좋은 신물질 원제개발을 이루기 위해 정부 및 업계와 협업하여 우리나라만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꿈을 그리고 있다"며 최고의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김제농업연구소는 대지면적 2770평, 건축면적 484평, 연면적 720평 규모로 준공되었으며 총 사업비로 80억원이 소요됐다. 농약개발을 위한 연구시설로는 생물연구실, 잔류연구실, 제형연구실, 환경독성연구실, 제제실 및 유리온실 등이 있다. 특히 농약의 안전성시험을 위해 설계부터 GLP시험구역을 독립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립했다. 이에 대해 정창국 소장은 '9월말까지 잉어, 미꾸리, 물벼룩, 꿀벌에 대해서 GLP시험기관 지정을 받을 계획이며 잔류 및 이화학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G한국삼공 '애니충의 자신있는 약속' 이벤트 실시

'살포 후 효과가 없다면 100% 약값을 돌려줘'

SG한국삼공(대표이사 한태원)은 나방전문약 '애니충' 액상수화제 구입고객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애니충의 자신있는 약속 이벤트'를 진행중에 있다. 농약업계 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행사로 기간중 애니충 100ml, 125ml, 250ml를 구매하고 살포 후 효과가 없을시 100% 약값을 돌려주는 이벤트이다. 이와 더불어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애니충 사용수기 공보를 통해 1,000명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기도 하다. SG한국삼공 관계자는 "애니충의 약효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약효와 약효지속기간, 인건비, 노동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수 있는 경제적인 약제임을 농업인분들에게 알려주고자 '자신있는 약속'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경농, 원예종합 살균제 '아칸토' 출시!!

강력한 방제효과와 인축, 환경에 안전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은 원예용 종합살균제인 '아칸토 액상수화제' 아시아-태평양 지역 첫 생산 기념식을 원료공급사 DuPont과 함께 지난 6월 8일 경농 대구공장에서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국내 판매개시를 선언한 '아칸토' 액상수화제는 강력한 침투이행성 및 침달성을 발휘해 약제가 닿지 않는 부분까지 강력한 방제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증기압효과'라는

새로운 이행방법으로 더 안쪽의 깊숙한 부분까지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부가기능으로 엽록소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그린닝현상 그리고 가뭄을 견디는 가뭄저항성까지 겸비했다. 또한 인축 및 환경에 안전성도 뛰어나다.

이 때문에 국내는 물론 전세계 30여개국에서 현재 사용 또는 등록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과 점무늬낙엽병, 고추 탄저병에 등록되었으며 향후 적용작물과 적용병해가 추가 등록될 전망이다.

김일용 생산본부장은 "사과, 고추 등 주요병해의 예방 및 치료효과를 동시에 발휘하는 '아칸토' 액상수화제가 출시됨에 따라 과수·채소류의 고품질 생산과 이에 따른 농가소득의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SG한국삼공, '이동 영농상담 행사' 실시

6월말까지 농업인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

SG한국삼공(대표이사 한태원)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지난 4월부터 전국의 지점별로 '이동 영농상담 행사'를 시작하여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가에 직접 찾아가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 수도작에 대한 영농상담이 주 목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농가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농약의 사용을 돕고자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농협과 판매상을 찾는

농가들에게 최근의 파종, 이앙기의 저온현상 등의 이상 기후와 재배 환경 등의 변화에 대처하여 올바른 약제의 선택과 사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했으며 각 지역별 문제 병해충과 잡초의 방제에 대한 상담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SG한국삼공의 초간편제형의 논잡

초약 풀다벤·이티에 대한 홍보와 판촉도 동시에 진행하여 농가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문의전화 : 1599-3082>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신임 대표이사에 '하랄드 프린츠'씨 취임



한국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신임 대표이사에 하랄드 프린츠 (Dr. Harald Printz) 사장이 임명됐다. 지난 6월 1일자로 취임한 신임 하랄드 프린츠 사장은, 1995년 바이엘 입사, 몬하임 작물보호 사업부 토양 및 작물 신진대사 연구 박사과정을 거쳐, 1998년 몬하임 작물보호 사업부 해외 사업 지원, 1999년 중국 바이엘 작물보호 사업 대표, 2002년 한국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마케팅 및 개발 본부 본부장, 2006년 5월 태국 및 스리랑카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대표를 역임한바 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5월말까지 한국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요그레바인(Mr. Joerg Rehbein) 사장은 역시 2011년 6월 1일부로 인도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의 신임 대표이사로 발령됐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현재 전세계 약 120여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농화학 기업으로서,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바이엘 헬스케어를 비롯하여 첨단 신소재 및 그 원료 개발의 선두주자인 바이엘 머티리얼사이언스와 함께 바이엘 그룹의 일원이며, 국내에서도 1955년부터 반세기 이상을 우수한 제품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중견 기업이다.

동부한농, 가정용 살충제 시장 진출

6. 13. 동호제약과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주)동부한농(대표 우종일)이 가정용 살충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 가정용 살충제 전문업체인 동호제약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부한농은 기존 동물약품사업의 위생방역사업을 가정용 살충제 분야까지 확대하게 됐다.

동호제약은 1994년 설립 이후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입히는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의 구제 및 방제를 위한 가정용 살충제를 개발, 공급해왔으며, 현재 파리, 모기 등 날아다니는 해충 구제용(FIK, Flying Insect Killer)과 바퀴벌레 등 기어다니는 해충 구제용(CIK, Crawling Insect Killer) 계열의 제품 30여종을 에어로졸과 리퀴드, 매트, 포획제 등의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동부한농은 동물약품 및 작물보호 사업에서 축적해온 살충제 개발 기술력과 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가정용 살충제 사업을 특화시킬 계획이다. 또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설비 증설과 전문인력 확보에도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동부한농 관계자는 “동호제약 자산양수에 따라 위생방역사업이 가정용 제품으로까지 확대돼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을 모시게 됐다”며, “앞으로 차별화제품 개발, 전문 브랜드 구축, 유통망 확보에 역점을 두고 외국계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가정용 살충제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